



# 어촌개발 분야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개발된다

## 한국어촌어항협회 어촌개발 분야 NCS 개발기관으로 선정

한국어촌어항협회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사업의 어촌개발 분야 직무 개발기관으로 선정되었다.

국가직무능력표준(NCS :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은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지식·기술·소양 등의 내용을 국가가 산업부문별·수준별로 체계화한 것으로 교육부와 고용노동부에서 직업교육·훈련 및 자격제도와 산업현장의 괴리를 해소하고 학벌이 아닌 능력중심의 사회를 구현하고자 NCS 개발 및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올해 수산분야에서 새롭게 추가된 어촌개발 분야의 직무는 어촌체험상품개발

발, 어촌체험시설운영, 어업환경개선 등 3가지 직무이며 교육·훈련, 자격제도 및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학습모듈(상세이론 및 실습서)과 활용패키지(훈련기준·평생경력개발경로 등)를 동시에 개발하게 된다.

협회는 이번 어촌개발 분야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을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성 높은 교육훈련과정을 구축하고 어촌 활성화 및 개발에 필요한 전문인력 육성의 발판을 다지게 되었다.

국가직무능력표준 2차 개발사업은 6월 중순부터 12월까지 약 170여일 간 추진되고 개발된 직무능력표준에 따라 산업현장 파일럿 테스트, 학교 교육과정 개

편, 전문대학 교육과정 시범운영 등이 향후 추진될 계획이다.

협회는 그동안 어촌체험마을 운영 활성화와 어촌관광을 통한 어업외 소득증대를 위해서 사무장 교육, 바다해설사 양성, 어촌체험마을 컨설팅 지원, 어촌체험마을 워크숍 교육 등 마을리더와 체험마을 운영자, 어촌관광 관련자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이번 어촌개발 분야 직무표준 개발을 통해 어촌체험마을 관련 종사인력의 전문적, 체계적인 교육훈련 토대를 마련하고 직업훈련, 자격증 제도 등과의 연계를 통한 어촌개발 인력의 고도화로 지속 가능한 어촌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안심하고 어촌체험을 즐길 수 있는 어촌체험마을 보험 가입 완료



한국어촌어항협회는 지난 5월 30일부터 어촌체험마을을 찾은 체험객들을 대상으로 체험 도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였다.

이번에 보험에 가입한 체험마을은 31개소이며, 보험의 주요 보상 내용은 갯벌체험에서부터 선상체험, 바지선낚시까지 보상해 주며, 특히 해상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보상까지 범위가 확대되는 등 어촌체험에 대한 보상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였다.

정부는 고액의 보험료에 대한 부담을 덜고 많은 어촌체험마을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보험료의 50%정도를 국고로 지원하고 최대 2억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진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어촌체험마을 보험은 2012년 개발한 상품으로, 어촌체험마을에서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여 어촌관광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어촌체험마을 보험가입 명단

순 번	지 역	마 을 명
1	경기/인천	공수마을
2		국화마을
3		전곡마을
4		선감마을
5		종현마을
6	강원	남애마을
7		장사마을
8		대야도마을
9	전북	만돌마을
10		하전마을
11		장호마을
12		장자도마을
13		송계마을
14	전남	수문마을
15		우전마을
16		청용마을
17		죽립마을
18		풍류마을
19	경북	구산마을
20		기성마을
21		차유마을
22		신창2리마을
23	경남	계도마을
24		다대마을
25		이수도마을
26		문항마을
27		고현마을
28	제주	연명마을
29		구엄마을
30		하도마을
31		사계마을